

BORYUNG

BORYUNG
PHARMACEUTICAL
GROUP
MAGAZINE

2021 SUMMER



BRING LIFETIME CARE

Vol. 403

3
Cover story
각자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The Garden of A Paradise 2014

보령 BRing 문화 시리즈
휴식_하다

6
Work & Solution
내 휴가를 부탁해

8
HashTag
#O캉스 전성시대

10
BR Survey
지금, 일한 만큼 잘 쉬고 계신가요?

12
인생OO
인생 휴가를 소개합니다

14
BR Writer
내가 꿈꾸는 OFF에 대해서

16
HOT BR
BR을 쓰아 올리다, BRing On!
보령제약 Rx전략그룹 송윤희 그룹장

20
BR人 탐구생활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령제약 환경안전팀 이병관 팀장

24
Best BR Team
우리는
관심투자종목,입니다
보령제약 CLINIC 마케팅팀

28
Life
MCN의 화상 사회 상상

30
Story
루스벨트의 뇌졸중과 카나브

34
BR It
슈퍼개미의 우황청심원으로
하락장에서 살아 돌아온 베짚이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보령우황청심원' 편

36
BR News

BORYUNG
2021 SUMMER

보령 제39권 2호(통권 403호)
발행처 보령홀딩스
03051 서울특별시 북촌로 104 계동빌딩
발행인 보령홀딩스 이준희
발행일 2021년 6월 17일
등록일 1982년 11월 27일
기획·취재·편집 디자인 큐라인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분들은
연락주세요.
02.708.8424



Cover story

각자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글. 아트파크 권은지

제유성(1963~)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San Francisco Art Institute,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수료하고, 아트파크, 한가람 미술관, 갤러리 현대, 국립 과천 과학관, 서울 시립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작품은 서울 시립미술관, 보령제약, 토탈미술관, 현대아산병원, 산업은행, (주)신영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에 소장되어 있다.



The Garden of A Paradise 2014 / 캔버스에 유화, 160x160cm

기하학적인 여러 도형이 캔버스 위를 날아다닌다. 자연의 형태는 세밀한 구성 혹은 미리 그려낸 스케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꼬리의 꼬리를 물며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 하나의 유기적 형태가 구성된다. 자연과 같은 원초적인 선에서 시작된 제유성의 작품은 생명의 정원을 소개한다.

언뜻 꽃과 나무, 풀 등 자연의 요소 같아 보이는 형상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실제보다 더 기본적인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우주를 유영하듯 자유로이 모여 있는 모습은 자연과 다름없이 싱그러운 생명력을 갖는다. 무중력 속 다양한 형상들은 무질서가 아닌 공존으로, 자연의 질서 또한 그러할 것이다. 여러 모습이 겹치고 어우러지며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 속에서 또 다른 형상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생명 간의 관계는 단순히 무의식 속에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제유성의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려내는 것 이상의 상상력으로 여러 해석을 가능케 한다.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유토피아 풍경을 표현하고,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또 다른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한다.

보령 BRing 문화 시리즈

휴식_하다

Take a rest

“휴식은 게으름도, 멍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헨리 포드_자동차 회사 '포드' 창설자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면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보다 분명히 보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_예술가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 잔타마타_작가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소크라테스_철학자

“휴식이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식은 곧 회복인 것이다.”

데일 카네기_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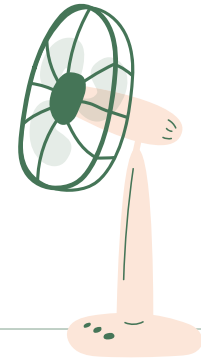
“전화기 충전을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랬네.”

트롯 경연대회 결승에서 가수 정동원이 부른 <여백>이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영혼의 동반자 같은 휴대폰의 배터리 용량이 30% 아래로만 내려가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에서 날 위한 충전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편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한 칸 한 칸 줄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마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충전 없이 소비만 하고 있진 않나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자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습니다. 워라벨이 미덕인 시대에 왠지 나만 못 쉬고 있는 느낌도 들곤 하죠. 불안한 마음으로 작년부터 줄곧 달려온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올해 휴가는 생각을 비우고 꼭 쉬는 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심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호를 열어봅니다.

내 휴가를 부탁해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다는 건 불안함을 수반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는 일, 내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휴가계를 내는 일이 두려운 거겠죠. 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직장 동료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휴식을 위한 슬기로운 연차 쓰기에 대한 고민과 답변을 만나보시죠.

글. 편집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의 휴식을 걱정하는 당신에게

사실 백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염려증이 좀 있기도 하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기로에 서서 망설였습니다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맞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온전한 쉬이 필요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길 들으니 제일 먼저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서더군요. 백신 접종 이후의 휴식,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걱정은 덜고, 백신은 맞고~ 휴식하세요!

아마 다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접종 전과 후, 개인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보니 타사의 사례에서는 백신 접종을 위해 부러 연차를 내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결정인 백신 접종을 위해 마음을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보령제약에서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5월 27일부터 '백신 유급휴가'를 시행 중입니다.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2일의 유급휴가를 드리고 격려품으로 '배달앱 상품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는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총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더 나아가 고객들의 건강을 위한 회사의 결정입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백신 접종 후의 컨디션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접종하시고 다음날까지 편안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회사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BR과 BR인을 응원합니다!

휴가 전 업무 지시로 제대로 못 쉬는 당신에게

퇴근 시간 이후나 휴가 기간 중에 업무 연락하는 빈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매하게 퇴근 직전이나 휴가 직전에 업무 지시 연락을 받고,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스스로입니다. 집에 가셔도, 여행지에서도 그 업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업무에 온 생각이 집중되어 온전히 쉬을 즐기지 못해 괴롭습니다.

직책은 당신의 부캐에 불과합니다

꽤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특히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휴식'으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내 마무리를 짓지 않은 업무에 대한 생각이 휴식의 공간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업무에 대한 진리를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업무를 개인이 다 끌어안고 갈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행했던 '부캐'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A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는 엄마일 수 있고,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등산회에서는 회장이라는 부캐를, 게임 안에서는 힐러라는 부캐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캐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업무가 뒤섞이고, 멍고 끊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아의 충돌로 번아웃 상태가 되어버릴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 회사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을 겁니다. 업무를 사랑하는 열정과 남다른 책임감을 당신은 결코 쉬이 놓지 못할 겁니다. 다른 부캐들을 존중하며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BR인으로서의 나도 그 사이에 완충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ON & OFF 스위치를 잘 조절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당신을 위해서.



HashTag

여름휴가의 풍경이 작년부터 완전 달라졌습니다. 계속 야외에서 이동하는 일정보다는 거점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는 'O캉스'가 대세인데요. 호텔에서 묵는 호캉스 말고 아직 계획이 없다면 이 안에서 휴가의 형태를 결정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 편집실

#O캉스 전성시대



#Vacance #Staycation

#숲캉스 (숲+바캉스)

지난해 한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행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56%에 달하는 응답자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여행지에서 자연을 즐기는 여행'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빌딩 숲을 잠시 벗어나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푸릇한 자연 속으로 떠나 잔잔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그저 자연 뷰가 좋은 곳으로 몰렸다면 요즘에는 '웰니스(웰빙 Wellbeing과 건강 Fitness의 합성어)'의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과 결합된 '숲캉스'를 선호합니다. 이를테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식 사우나에서 땀을 쫓 빼거나, 명상 센터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거나, 차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연은 늘 진리이니, 이번 여름엔 초록색을 맘껏 흡수하고 돌아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천 검색어 [금강송 에코리움\(경북 울진\)](#) / [위호텔 제주\(제주 서귀포\)](#)

#펫캉스 (반려동물+바캉스)

집에서 가장 귀여운 가족, 반려동물과 휴가를 떠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물병원 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거나 지인에게 부탁할 필요 없이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펫캉스'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펫룸'은 기본이고 다양한 실내의 공간에서 '펫카페'와 산책과 운동이 가능한 '펫파크'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호텔에 따라 다르지만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판, 배변패드 등 기본! 공기 청정기와 탈취제, 먼지 제거기 등이 비치되어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 쾌적한 객실 컨디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휘닉스 평창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웰니스 숲길을 산책할 수 있으며, 1,050미터 높이의 정상까지 올라가보는 곤돌라도 운영 중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흡족한 여행이길 원한다면 이번 여름은 펫캉스를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추천 검색어 [퀸싱턴 리조트 충주\(충북 충주\)](#) / [휘닉스 평창\(강원도 평창\)](#) / [소노람 고양\(경기도 고양\)](#)

#키캉스 (어린이+바캉스)

집에서 '홈캉스'하고 싶어도,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을 편히 풀어줄 수 없어 답답했던 부모님들, 그리고 대체 키즈카페 말고 어딜 가면 좋아할지 아이들의 취향저격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주목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에게 잊지 못할 여름휴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키캉스' 프로그램이 여러 숙박 시설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테마룸으로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는 기본, 호텔 내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보물찾기를 유도하는 미션북을 증정합니다. 이를 완수하면 추가적으로 선물도 받을 수 있어 아이들에겐 여름휴가의 좋은 추억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른 동반 시 어린이 조식 무료 이벤트나 호텔 내 시설 어린이 무료 이용은 그냥 호캉스를 보내는 것보다 가족 모두에게 이득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좋고, 어른은 함께 웃을 수 있는 키캉스로 안전한 여름휴가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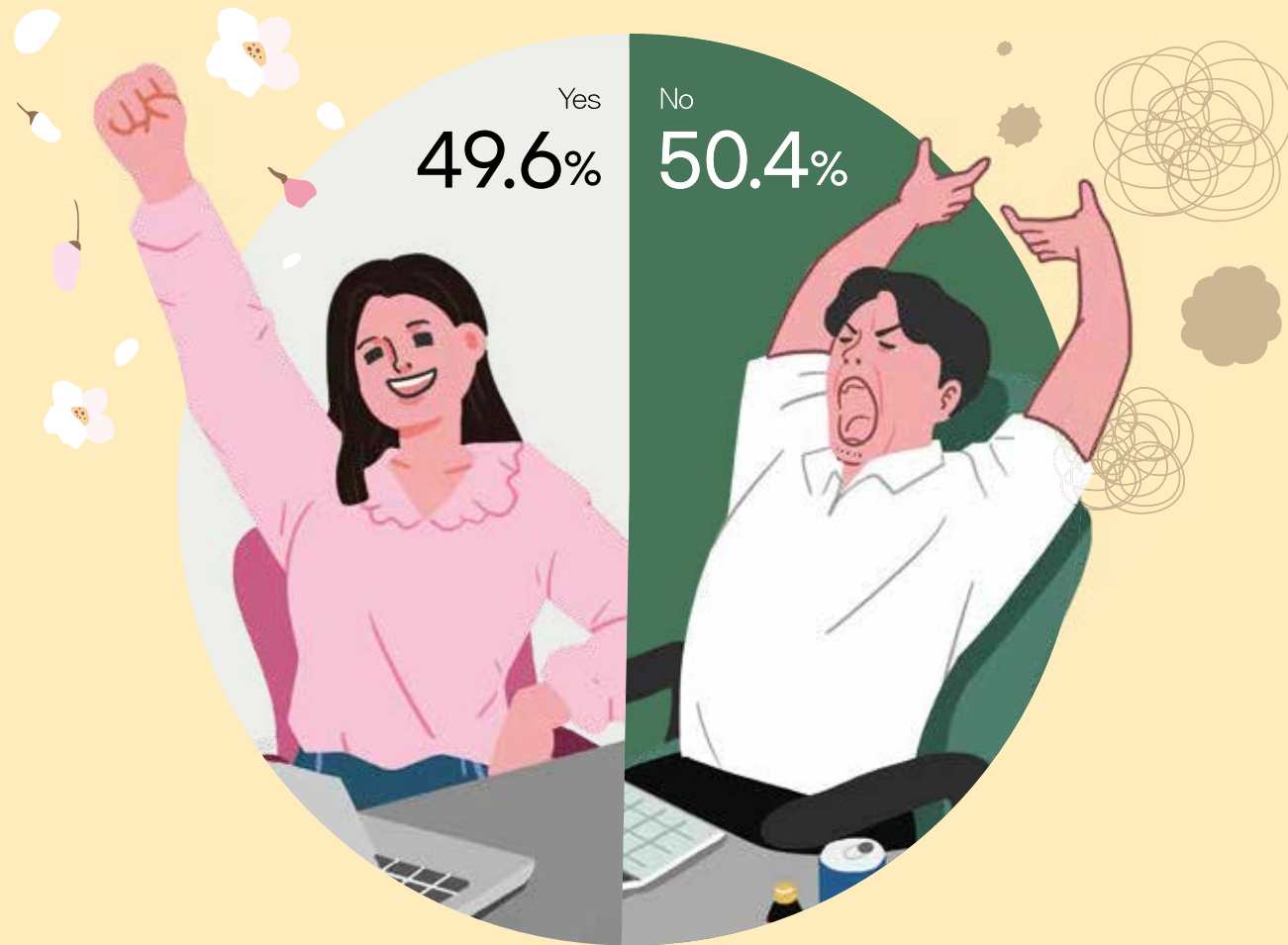
추천 검색어 [콘래드 서울\(서울 영등포구\)](#) / [그랜드 조선 호텔\(부산 해운대구\)](#) / [코트야드 보타닉 파크\(서울 강서구\)](#)

지금, 일한 만큼 잘 쉬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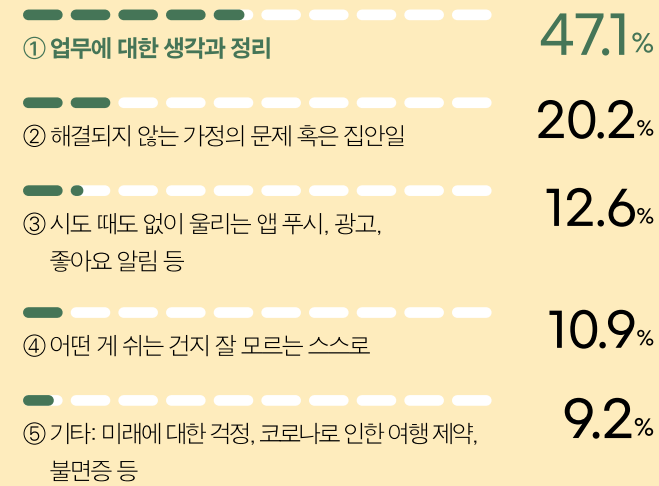
설문 기간 5/24~31 참여 인원 119명

잘 쉬는 것도 능력인 시대. BR인들의 ON&OFF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일한 만큼 잘 쉬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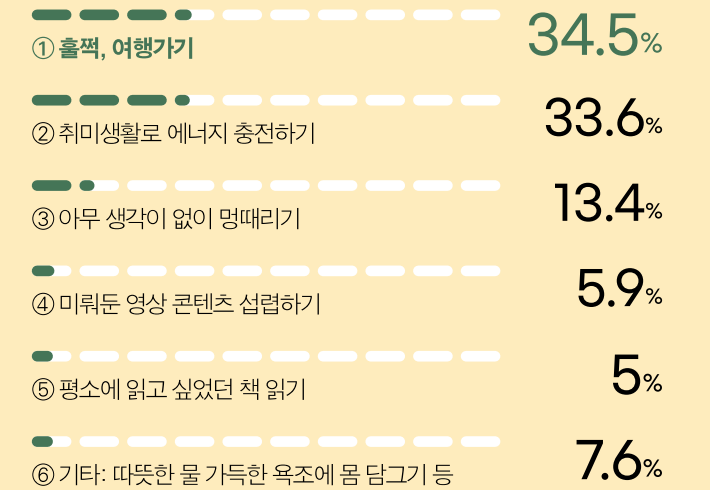
나는 잘 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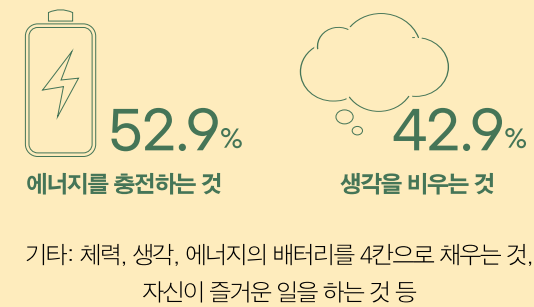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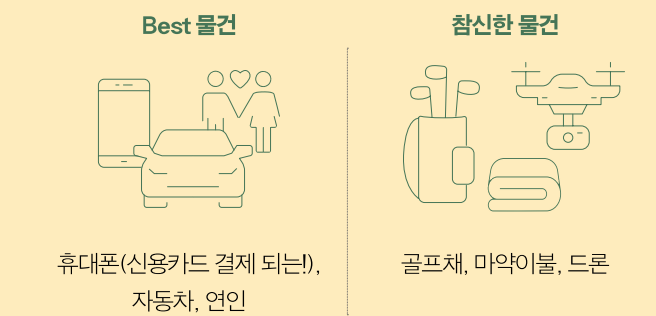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휴식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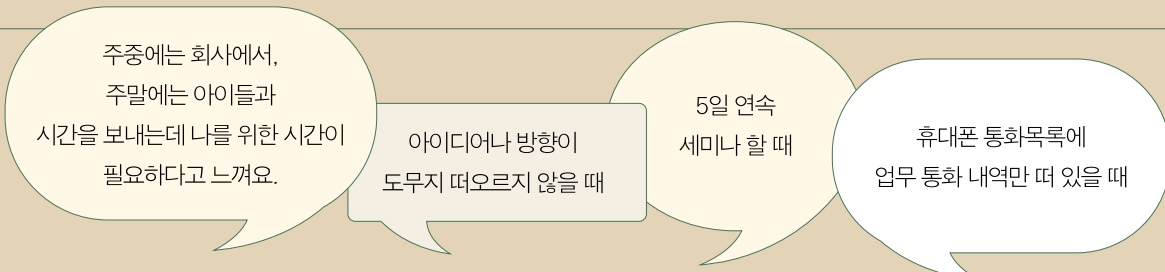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휴식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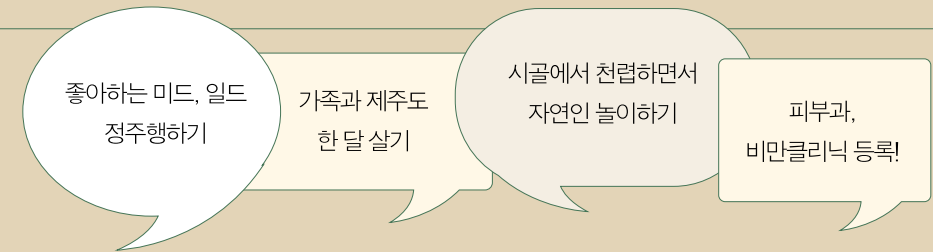
한 달 휴가가 주어지면 딱 세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회사 생활 중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였을까요?



만약 지금 한 달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내가_생각하는_휴식이_뭔가_가기_전_점검해보기 #휴가_가기_전_점검해보기 #내가_생각하는_휴식이_뭔가_가기_전_점검해보기

인생 휴가를 소개합니다

낮선 여행지에서 길을 잃은 기억,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느껴지는
그때의 공기와 냄새, 현지에서 만난 동행인이
밥을 사줘 지금도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 경험 등.
어쩌면 그때의 기억이 행복으로 치환되어
평생 살아갈 힘을 얻은 게 아닐까요?
BR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 생에서 ‘인생 휴가’는 언제였나요?”



**꽃향기 물씬,
나홀로 역사 밤샘** 채윤희 과장 / 보령제약 RA2팀

꽃이 유명한 이탈리아 소도시에 혼자 기차 타고 여행을 갔어요. 아직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꽤 호젓했는데요. 때마침 꽃 축제 기간 중이라 마을 전체에 퍼진 꽃 내음에 취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차를 놓쳐 나홀로 기차 역사에서 뜬 눈으로 잠을 지새웠어요. (웃음) 원래 고생하면 마음에 더 남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을의 분위기, 향기 모두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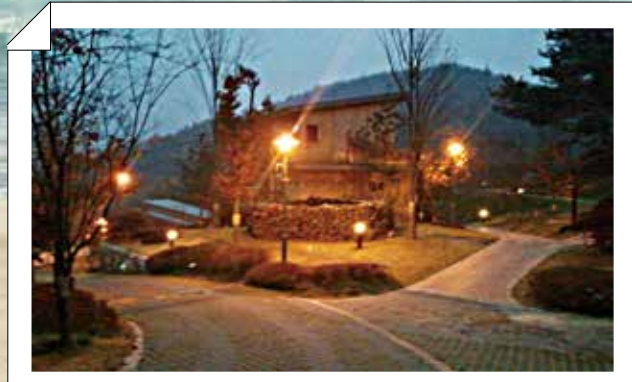
**내 젊은 날의
스위스** 김진황 주임기사 / 보령제약 공정개선팀

갓 20세가 된 기념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배낭여행으로 서유럽에 갔습니다. 돈도 없었고, 여러모로 힘든 여행이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스위스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아 있습니다. 웅장한 융프라우 아래 낮은 나무집들이 자리하고, 중간중간 작은 폭소 사이를 걸으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던 스위스 체류 기간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기억납니다. 인터라켄에서 자전거를 빌려 강 따라 동네를 돌던 기억, 친구들과 풍류를 사먹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네요. 다시 그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애뜻한 휴식의 기억입니다.



**고생 끝에
왔던 낙!** 박차영 대리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영업관리팀

20대 초반, 친구들과 간 일본여행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어리바리하고 많이 헤맸어요. (웃음) 날은 또 어찌나 출던지. 여차저차해서 찾아간 숙소 노천 온천에서 여독을 풀며 하늘을 봤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신선 놀음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려고 그렇게 헤맸나 싶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아직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면서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첫 해외여행의 기억이 제 마음 속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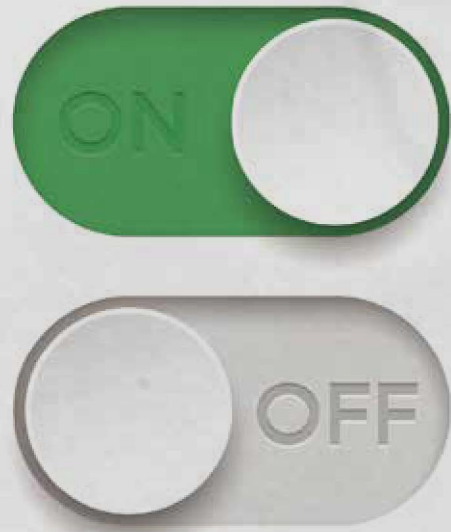
다시 힘을 되던 여행길 황용연 상무 / 보령제약 제제연구소

수개월간 문제와 시행착오가 연속되던 해외출장이 반복되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짧게 짬을 내어 나를 위한 휴가를 떠났는데요, 2박 3일 충주여행을 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을 울면서 목 놓아 부르던 때가 기억납니다. 뭔가 응어리 같은 것이 멎었다가 터졌는지 왠지 처절한 기억이었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이 되어줬어요. 충주여행, 제겐 강렬한 인생 휴기였습니다.



**이들의
보너스 휴가** 김선홍 수석 / 보령제약 병원1팀

2020년에 떠난 울릉도 여행 3박 4일 예정으로 갔다가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 못해 2일을 더 강제 휴가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울릉도를 이틀치 더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신께서 보너스 이들의 휴가를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어떤 행운을 주실지 기대되네요.



내가 꿈꾸는 OFF에 대해서

매일이 ON인 삶은 배터리가 참 빨리 닳습니다. 그럴수록 휴식은 멀어지고 소진은 빨리 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OFF를 찾아 탐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나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빈 공간을 채워보세요.

선택해봐요, 밸런스 게임

- ❶ 나는 퇴근 후 (맥주 한 잔 vs 운동 한 시간)으로 피로가 풀린다.
- ❷ 지금 OFF를 받을 수 있다면 (산 vs 바다)로 달려가고 싶다.
- ❸ 해외여행 플랜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건 (숙소 vs 쇼핑 장소)다.
- ❹ 할 수 있다면 휴대폰은 (켜둔다 vs 꺼둔다).
- ❺ 휴식의 시간에 주로 (혼자 vs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가진다.
- ❻ 실 때 나는 주로 (눕는다 vs 움직인다).
- ❼ 실 때 나는 주로 (먹는다 vs 굶는다).

상상은 공짜, 가상 여행 설계

고민하지 말고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그림도 OK!

- ❶ 지금 당신에게 당장 떠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국내외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떠나고 싶나요?

- ❷ 이곳에 딱 한 사람을 더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고, 왜 선택하였나요?

- ❸ 어떤 형태의 숙소를 선호하시나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저녁엔 맥주파티가 열리는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한 풀빌라, 도시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중심가 호텔 등 구체적으로 선택해보세요.

- ❹ 나는 현지에서 어떤 걸 해야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축구경기를 보며 환호할 수도 있고, 제법 유명한 미술관에서 한 시간 동안 한 작품을 바라보는 호사를 누리거나, 한적한 공원에서 돛자리를 펴고 누워 일광욕도 하고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휴식이 될 수 있을까요?

- ❺ 꽤 충분한 휴식 이후, 현지에서 자신을 위한 선물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부터, 근사한 옷 한 벌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요?

- ❻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당신, 여행 동안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떨리는 마음으로 켜니다. 현실로 돌아온 지금, 누구에게 어떤 문자가 와 있을까요?

- ❼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선사할 순 없지만, 꿈꾸는 방법을 일깨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만간 이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당신을 위한 온전한 휴식에 오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문답이 당신의 선택에 미약하나마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가상 휴가에 대한 별점도 잊지 마세요! 그럼, 쉬세요.



BRing On Studio

BR을
쏘아 올리다,
BRing On!

보령제약 Rx전략그룹 송윤희 그룹장

지난 5월 3일, 드디어 'BRing On Studio'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넓은 메인 스튜디오와 조정실,
1인 방송실이 BR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TF팀을 만들어 BRing On Studio 구축을 주도한
보령제약 Rx전략그룹 송윤희 그룹장에게 Studio 탄생 비하인드에 대해 들었습니다.

글. 이유정 사진. 박찬혁



비대면을 돌파할 비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전으로 돌입할지 가능조차 되지 않았던 작년 5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보령제약 디지털 TF팀이 발족되었습니다. 비대면 행사와 소통이 필수인 환경 속에서 송윤희 그룹장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Studio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콘텐츠 소비 패턴을 보면, 텍스트나 이미지 위주에서 벗어나 영상물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BR인들에게 익숙한 웨비나, 웹심포지엄, 교육 모두 영상 기반이구요. 실시간 송출과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Studio 구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Studio 네이밍 공모를 했을 때 뜻밖의 반응에 놀랐다고 합니다. “보령에도 스튜디오가 생기는 건가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고객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하는 전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질문 세례에 힘입어 Studio 구축 프로젝트는 추진력을 얻고 진행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BR을 위한, BR에 의한, BR의 Studio

직원들이 직접 응모하고 투표한 네이밍 공모에서 ‘BR을 On-air 한다’는 의미의 ‘BRing On’이 1위에 오르며 정식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BR의 이야기를 송출한다는 포부에 맞게 BRing On Studio는 메인 스튜디오 하나와 1인 방송실 두 개, 총 3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적재적소의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메인 스튜디오는 웬만한 방송국 뉴스룸에서 사용하고 있는 ENG 카메라와 조

명, 천장 조명, 스탠드 조명 외에도 LED 백 월과 메인 진행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웨비나, 웹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조정실도 보유해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스튜디오 후면에는 크로마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상 배경 등의 후반작업을 통해 다양한 사내교육 콘텐츠와 고객 대상 자사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인 영상 홍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1인 방송실의 경우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는 화상회의나 화상 교육 등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송윤희 그룹장은 “1인 방송실에서 BR의 핫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BRing On Studio가 그분들의 끼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예약부터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메인 스튜디오는 보령TV의 뉴스룸이 되어 각 분야의 KoL(Key Opinion Leader)들이 보령 제품의 높은 가치에 대해 활발히 교류하는 Discussion의 장이 되고, 1인 방송실에서는 시공간 제약 없는 직원과 직원, 직원과 고객 간 소통의 장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우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송윤희 그룹장은 “BRing On Studio는 전직원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의 경우는 사내의 굵직한 행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디지털마케팅팀이 관리와 운

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1인 방송실의 경우에는 먼저 예약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약 방법은 인트라넷 자원예약 카테고리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1인 방송실은 선착순 예약, 메인 스튜디오는 승인 절차를 거친 예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Studio는 BR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업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Studio 구축에 함께 힘쓴 디지털마케팅 팀원분들 및 보령홀딩스의 남홍수 이사님과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영진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BRing On Studio가 보령의 얼굴로서, 가치를 알리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BR인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오픈을 앞둔 디지털 채널 ‘BR!dge’를 통해 활발히 On-Air 될 BR의 강력한 무기이자 공간인 BRing On Studio. BR의 가치와 제품의 우수성을 다양한 BR인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통해 전파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면 예약 후 방문하여 On-Air 버튼을 눌러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BR의 가치를 알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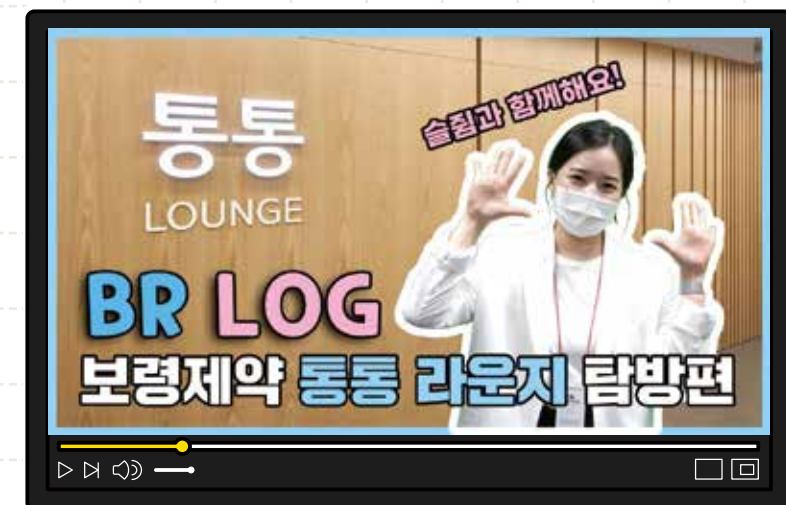


보령제약 유튜브에 소개된
BRing On Studio
만나보기!!

REC



영상 보러가기



뭐든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몸에 밴 보령제약 환경안전팀 이병관 팀장의 직업 습관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업무와 사람에 대한 '관심'은 결국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 길이라 믿으면서 포스트잇과 펜을 들고 현장을 누비는 안전지킴이입니다. ESG가 글로벌 화두로 오른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병관 팀장으로부터 환경안전팀의 직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글. 이유정 사진. 박찬혁

환경안전팀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령제약 환경안전팀 이병관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은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보건관리, PSM(공정안전관리) 관리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제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화두인 ESG의 E(Environment) 항목에 대한 안산공장의 전반적인 수치를 데이터화 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안전사고죠. 하루에 한 건씩 보이는 안전사고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업무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주변 여건에 관심이 있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눈여겨 보게 되고, 각성하게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환경안전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사람, 업무, 일터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령제약 환경안전팀
이병관 팀장



우리의
목표가
회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 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입니다.

관련해서 주요하게 하고 계시는 업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주요 흐름인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첫 철자를 딴 단어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경영의 기본 조건입니다. 저희는 특히 환경 부분인 E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에 그쳤다면 이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 농도 및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절감활동 등의 정보인데요, 보령 홈페이지의 사회적 책임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수치화, 데이터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 사고 대비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령 공식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회적 가치' 파트에서 보령에서 하고 있는 ESG 활동과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글로벌 공생,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오늘을 위한 보령의 노력이 궁금하시다면 접속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작업자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산공장 안에 있는 다양한 직군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사용되는 물질들까지 파악이 되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 외 공장 구석구석 오염유발의 위험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 공간이 환경안전팀의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중요하게 체크하고 팀원들과 공유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현장에서 작업이나 점검 중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작업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포스트잇과 유성펜을 휴대하고 현장 작업에서 그 상황에 맞는 사항을 포스트잇에 적고 붙여 표시를 합니다.

이름테면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조작 금지, 오후 3시, 이병관" 이라고 해두면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일어날 안전사고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환경안전팀 주요 목표

 <p>안전사고 Zero를 위한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활동</p>	 <p>PSM(공정안전관리) 등급 M+에서 S등급으로 향상</p>	 <p>유틸리티 에너지 절감</p>
---	--	--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했습니다.

함께해요 ESG!

보령 공식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사회적 책임' 탭을 클릭하시면 환경안전팀이 6개월 마다 보고하는 ESG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업무적으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약용수는 의약품에 항상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모든 의약품에 정제수나 증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품질이 좌우되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수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의약품은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것으로 작은 원료, 물 하나라도 잘못된 게 들어간다면 큰 위험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께 부탁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공유해주세요.

매년 안전사고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휴가 전, 연휴나 연말 등 일상에서 변화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분이 들뜨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고 나와 내 주변의 동료에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직원분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L50 발매 첫 주 NO.1 등극 뒤엔 이 팀이 있었습니다.
투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 관심투자종목,
줄여서 자칭 'BR의 관중'이라 일컫는
보령제약의 CLINIC 마케팅팀입니다.

글. 이유정 사진. 김현희

우리는

관심투자
종목,입니다

보령제약 CLINIC 마케팅팀

협업에 살고, 협업에 마케팅한다

보령제약 CLINIC 마케팅팀은 제품에 대한 전략수립을 시작으로 시장 내 판매 사이클 관리를 위한 재고 관리, 키 메시지 수립, 프로모션 진행, 교육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0병상 미만 병원의 영업을 담당하는 의원영업본부의 세일즈 마케팅 업무도 수행합니다. 다양한 제품과 수적으로 가장 많은 조직을 담당하는 마케팅팀이기에 제품별 시기에 맞춘 집중적 업무 진행에 따른 성장을 위해서는 협업력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습니다. 발매 첫 주 1위를 달성한 L50 PM인 최동호 과장은 협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질환별 PM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팀원이 담당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수시로 공유하곤 합니다. 팀장님도 아낌없이 노하우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주시고요. 각 개전투 했다면 아마 오늘은 없었을 것 같아요.”

CLINIC 마케팅팀의 협업력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구조 덕분입니다. 각자 담당하는 제품 중심으로 마케팅 업무가 진행되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깃은 동일한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의원영업본부의 판매 품목과 맞춰 모든 질환과 관련된 제품을 담당하다 보니 같은 고객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전략수립이 가능합니다. 본인 업무를 하면서 특이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TF팀처럼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구조가 정립해 있습니다.





투자 받은 만큼의 퍼포먼스, L50으로 빛나다

L50은 LDL 콜레스테롤을 50%까지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발매 3개월 전부터 제품명의 인지도 각인을 위해서 콜 캠페인 및 런칭 심포지엄, 학회를 통한 홍보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정웅제 본부장이 이끄는 강력한 영업력을 자랑하는 의원영업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세미나에 기념촬영 이벤트 및 사전 마이크로마케팅을 통해 발매 전까지 준비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발매 첫 주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거두며 팀원들이 함께 박수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조현우 팀장은 “L50이라는 제품명은 마케팅 손정영 그룹장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윤상배 부문장님은 철저한 런칭 프로세스 그리고 성백민 본부장님께서서는 해당 제품명 각인을 위한 마케팅의 중점을 두셨고 이 부분을 키 포인트로 삼아 발매 전부터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보니 고객의 마음에 잘 각인이 되어 제네릭이지만 오리지널처럼 포지셔닝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와 전적인 투자를 받아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쁩니다. 받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이뤄내는 저희 팀은 지속적인 투자를 받는 '관심투자종목', 줄여서 '관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받는 만큼, 뭉쳐서 해내고 있습니다”라며 근거 있는 자신감과 업무의 대한 열정을 내비쳤습니다.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공략한다

마케팅 업무에서는 생산에서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수많은 업무가 수반됩니다. 그중에서 CLINIC 마케팅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바로 '전략 수립'입니다.

“전략수립 과정을 비유하자면, 제품의 성공이라는 에세이를 쓰기 전에 '아웃라인', 혹은 '시놉시스'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어떻게 기승전결을 만들지에 대한 뼈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펜 첫 단추가 성공 혹은 실패를 가져다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말로 마케팅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조현우 팀장의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CLINIC 마케팅팀은 지금의 이 긍정적인 기운을 몰아 의원영업 본부와 함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신제품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데 선봉에 있는 팀이길 바라며, 모든 팀원들이 훗날 조직의 든든한 선배로서 자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 아이디어와 창의력,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 간의 신뢰속 협업이 이 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목표와 계획이 이뤄지길, 지금처럼 BR의 우량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CLINIC 마케팅팀이 소개하는 우리팀 TMI



66 저희팀은 옷 잘입는 패션피플팀입니다.

99 조현우 팀장
CLINIC 마케팅팀 팀장



66 장거리 출퇴근자 50%가 넘는 팀이에요.

99 고정혁 차장
카나브, 듀카브 담당 PM



66 일상으로의 회복을 염원하며 팀빌딩에 목마른 팀이에요.

99 최동호 과장
L50, 아카브, 듀카로 담당 PM



66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팀이에요.

99 장정임 대리
아스텔라스 Co-promotion 제품 (하루날, 베시케어, 베타미가), 백신 담당 PM



66 라떼 이야기가 없는 오픈마인드 팀이에요.

99 배정호 대리
아스텔라스 Co-promotion 제품 (하루날, 베시케어, 베타미가), 오셀렘, 오바렘, 피나스테라이드 담당 PM



66 미혼자가 아직 셋!인 팀이에요.(많관부)

99 홍재석 대리
오츠카 Co-promotion 제품 (무코스타, 프레탈), 스토가, 메이엑트 담당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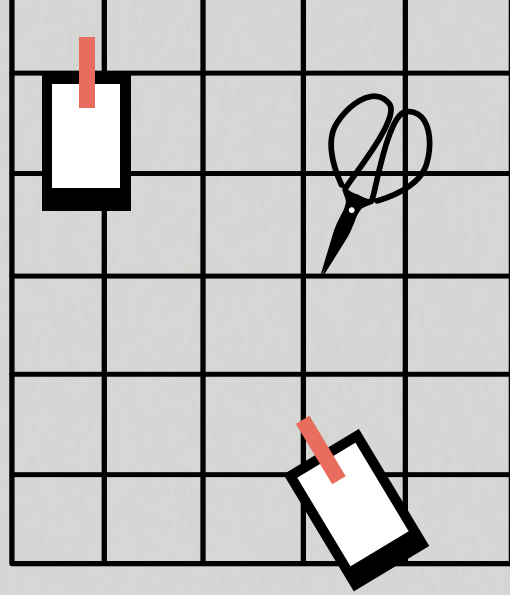
MCN의 화상 사회 상상

봄에 <저부터 MCN이 될래요>를 출간했습니다. MCN은 '미.친.놈'의 이니셜입니다. 남다른 기획력과 꾸준한 실행력을 가진 인재, MCN들을 통해 한국에 화상 사회를 만들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장 생활의 형태가 점차 바뀌는 중이죠. 이번 호는 '2021년 화상 사회 시리즈' 두 번째로 화상 사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고 화상 사회가 우리 삶에 어떤 형태로 자리잡게 될지 미리 예견해보고자 합니다.

글. 황인선 문화평론가

상황 1 문화 소외 해결

저는 자문, 강의 때문에 월 3~4회는 먼 지역에 다닙니다. KTX가 바로 달지 않은 곳들이 많아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이동하지만 그래도 탄소는 발생하죠. 2시간 강의로 결국 하루를 다 씁니다. 시간 효율이 낮아 서울의 지명도 있는 강사는 지역에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과 지역 간 지식·문화 갭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폐쇄성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화상 사회라면 문화 소외 현상이나 출장 기피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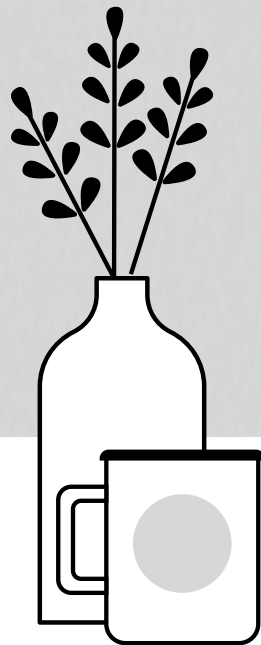


상황 2 랜선 회식
오사카, 베이징, 다낭에 있는 친구나 울산, 제주도 친구들이 그림습니다. 물론 전화, 영상 통화가 되지만 옛날처럼 전체가 모여서 얼굴 보며 막 떠들긴 어렵죠. 이럴 때 화상으로 모여서 얼굴을 보고 맛있는 안주에 맥주 한잔하는 랜선 회식은 그리움을 많이 해소해줍니다. 가족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화상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 3 재택근무
직장인은 꼭 주 5일을 출근해야 할까요? 오가는데 2~3시간, 회의 공간 섭외에 회사 내 시간 낭비, 교통 혼잡 스트레스, 시간 외 비용도 은근히 나갑니다. 당연하게 생각 해온 일상이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공통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고통은 혁신을 부르는 법. 주 3일을 재택근무와 화상 회의로 대체하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하는 회사가 많은데 결과는 생각보다 긍정적이며, 도시는 덜 북적입니다. 직장인들은 홈 생활을 다시 보기 시작했으며 반려 식물과 인테리어 사업이 활황 중이고, 페이스북은 재택근무 사회를 예견하고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인피니티 오피스'를 설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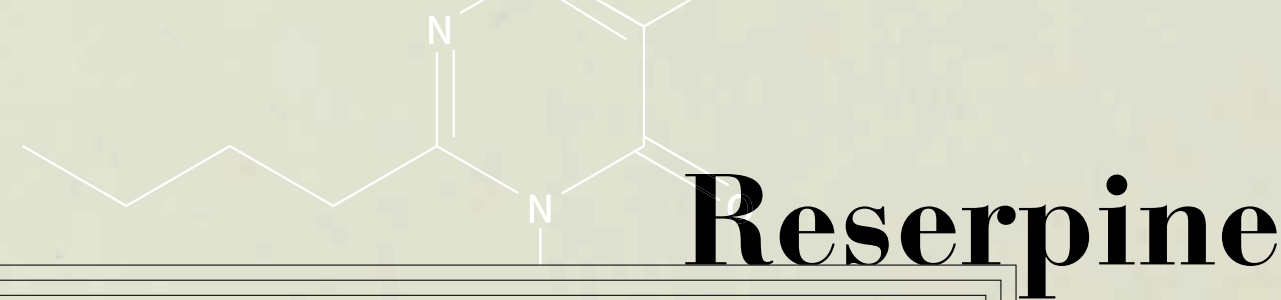
상황 4 화상 공헌 활동
도시와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 노령화, 비효율적인 로컬의 활성화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예를 들어 260개 지자체마다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대를 들여 지은 문화회관은 연평균 가동률이 20~30%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인구는 점점 노령화에 빠

게 줄 겁니다. 이런 문화회관과 화상 사회를 접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또한 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관의 멀티 화면이 있어 도시 사는 손자 손녀 자식들이 나오면 그분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엔 화상 스튜디오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농부들과 대화, 새로운 농사법, 세금 납부, 질병 치료 등도 알고 싶는데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마을회관과 문화회관(화상 스튜디오)에 모여서 화상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떨까요? 보령그룹도 제약 기업이니 화상을 이용하면 지역에 의약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화상 공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 늘고 있는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도시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살이와 디지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직도 10여 년 이상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지역과 서울을 잇는 가칭 '화상 큐레이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로컬 활성화에 좋을 겁니다. 화상 인프라는 여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이 융합되면 더 실감 화상도 가능할 겁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결국 화상 사회를 가까이, 풍요롭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황인선 현 (주)구루미 화상사회연구소장,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창조학과 겸임교수, 전 서울혁신센터장,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KT&G 마케팅/미래팀장, 제일기획 AE 등 역임. 신간 <저부터 MCN이 될래요>, <컬처파워>, <꿈꾸는 독종>, <동심경영> 등 저서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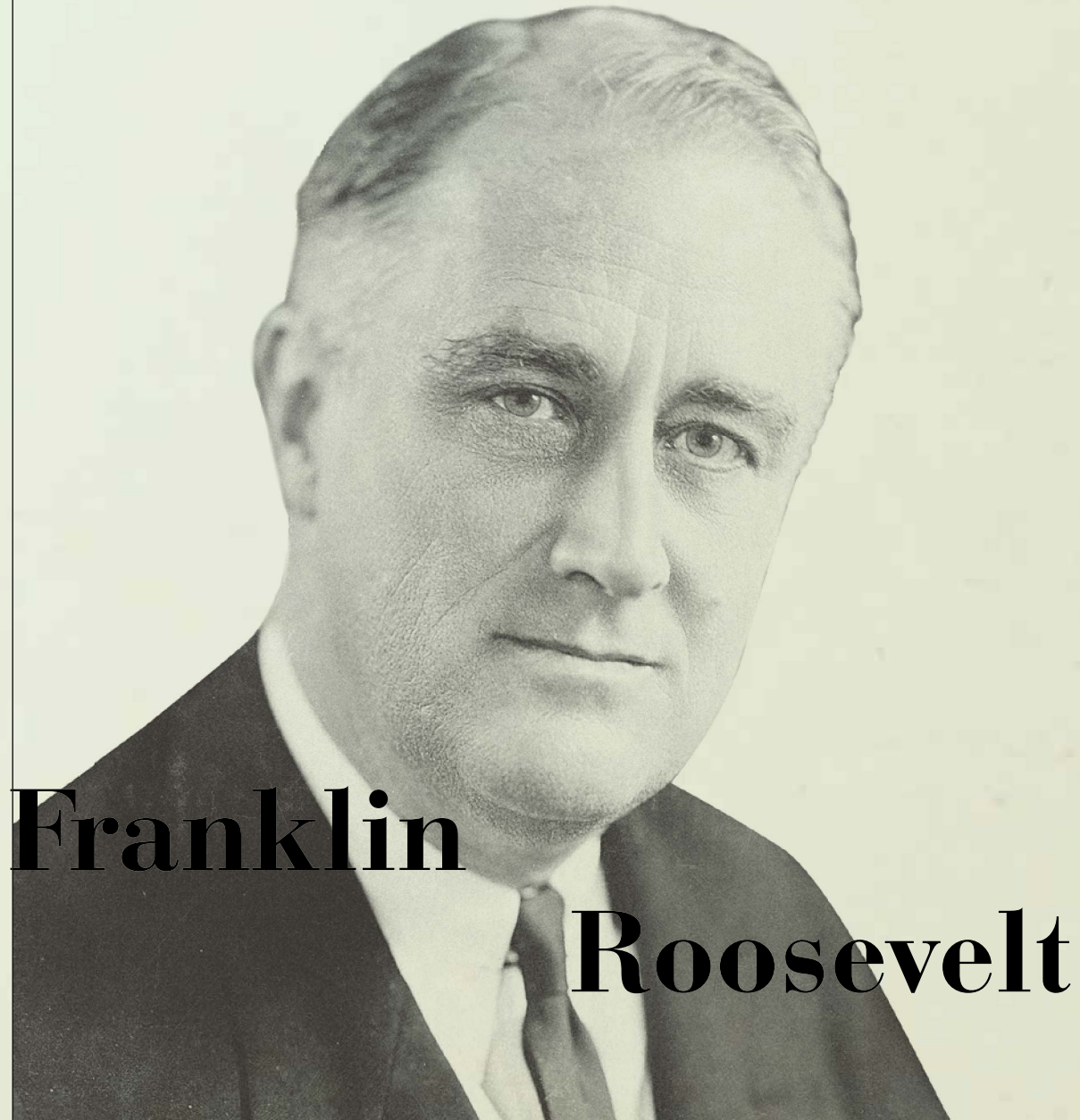
정승규 부산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약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홍릉 KIST에서 의약품합성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 <25가지 질병으로 읽는 세계사> 등 인문학으로 읽는 약 이야기와 관련된 저서를 출간했으며 현재 부산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Reserpine

루스벨트의 뇌졸중과 카나브

글: 정승규



Franklin Roosevelt

루스벨트 죽음 이후 등장한 레세르핀

1945년 4월, 대공황을 타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 승리를 눈앞에 둔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 대통령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수개월 전 대통령에 당선될 때 수축기 혈압이 300mmHg, 이완기 혈압은 190mmHg까지 치솟았다. 사망하기 두 달 전 중앙아시아 크림반도에 있는 알타 정상회담에서는 혈압이 260/150mmHg이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고혈압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그의 혈압에 대해 “그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기 도중 일어난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뇌졸중, 고혈압, 심혈관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인의 3분의 1이 고혈압을 포함한 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고혈압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1955년 레세르핀(Reserpine)이 고혈압약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약은 인도 민간약을 연구하면서 개발되었다. 인도에서는 뿌리 모양이 뱀과 유사한 인도 사목(Snakeroot)을 고대부터 수천 년 동안 사용했다. 인도 사목은 뱀이나 전갈에 물렸을 때 해독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 우는 아이를 달래는 용도로도 쓰였다. 달여서 차로도 마셨는데 마하트마 간디는 명상을 위해 항상 마셨다고 한다. 약초에 관심을 가진 서구의 연구자들은 인도 사목에서 활성 성분 레세르핀을 분리해 혈압을 낮췄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났다. 레세르핀을 장기간 복용하면 우울증, 악몽, 자살 등이 생겨 퇴출당하고 말았다.



▲ 인도 사목(Snakeroot)

ARB

혈압을 낮추는 열쇠

심장박동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약(베타 차단제)과 몸에서 혈압을 높이고 소금기를 줄이는 이뇨제를 거쳐 1981년 캡토프릴이 나왔다. 이 약은 남미에 서식하는 브라질 독사의 독을 가지고 개발한 약이다. 브라질 독사는 동물을 물어 혈압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브라질 원시 부족은 이 독을 화살촉에 발라 사냥에 사용했다. 제약회사 연구진은 독사 추출물이 혈압에 관련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를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독사 추출물에서 9개 아미노산이 연결된 펩타이드를 분리했다. 이 펩타이드는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좋았지만, 사람이 복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펩타이드를 먹으면 위산에 의해 분해되어 약효가 사라진다. 주사제로는 가능하지만, 혈압관리를 위해 매일 주사를 맞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서 경구용 약 개발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혈압을 낮추는 ACE를 억제하기 위해 프롤린(Proline)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펩타이드를 혈압을 낮추는 최소분량으로 쪼갠 다음 프롤린을 골격으로 여러 가지 작용기를 붙여서 합성한 100여 개의 화합물로 혈압강하 효과를 측정했다. 그중 가장 약효가 좋으면서 경구투여도 가능한 화합물이 나왔는데 이 약이 캡토프릴이다.

캡토프릴은 분자 구조와 약효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약을 개발한 최초의 사례여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화합물의 기능을 이해한 후, 최적의 약효를 갖는 분자를 만드는 것이다. 분자 구조와 약효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은 오늘날 신약 개발에서 보편적인 접근법이다. 현재 가장 많이 처방하는 고혈압 치료제 사르탄(Sartan) 계열도 캡토프릴의 성공이 발판이 되었다.



Captopril

ARB의 등장과 카나브

고혈압은 만성질환이라서 장기간 약을 먹어야 한다. 캡토프릴은 효과 좋은 혈압약이지만 마른기침이 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효능이 뛰어나고 몸에 무리가 없는 새로운 약이 필요했다. ACE를 뛰어넘어 혈압을 낮추는 또 다른 약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다. 현재 가장 널리 처방되는 고혈압약이 ARB이다. ARB는 고혈압, 만성 심부전, 뇌졸중, 당뇨병성 신증 등에 사용되어 혈관질환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약이 되었다. 최초의 ARB 로자탄이 나왔고, 이후 여러 종류가 추가로 개발되었다. ARB는 마른기침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없고 1일 1회 복용으로 혈압 조절이 잘 된다.

보령제약에서 개발한 카나브(피마사르탄)는 ARB 계열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다. 다양한 임상시험을 거쳐 4만여 명의 환자와 80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 가치를 검증받았다. 외국 거대 제약회사에서 앞서 개발된 약과 경쟁하기 위해선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당당하게 약효로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고혈압약은 복합제가 대세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여러 계열의 약을 먹기 편하게 한 알에 섞는다. 그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함께 낮추기 위해 고지혈증약과 복합한 약이 인기다. 고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63%는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함께 있을 경우 심혈관계 위험성이 3.5배까지 높아진다. 복합제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까지 떨어뜨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아서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전쟁 상황에서 국가를 이끄는 과도한 업무와 거동이 불편해 활동량이 적은 것이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만약 혈압약이 그때 개발되어 그의 수명이 몇 개월이라도 길어졌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는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알타회담에서 우리나라 분단이 결정되었고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투하 결정도 바뀔 수 있다.

획기적인 신약은 사람의 운명과 세계 역사까지 바꿀 수 있다. 우수한 약 하나로 인류가 간절히 바라는 생명 연장의 꿈이 현실이 된다. 부단한 연구개발로 신약 개발의 낭보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슈퍼개미의 우황청심원으로 하락장에서 살아 돌아온 베짖이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보령우황청심원'편



영끌해서 매수한 주식이 폭락하여
가슴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는 베짖이.
그런 베짖이에게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영업부
슈퍼개미가 건넨 것은 무엇?

글. 편집실



오늘도 숲속카페에서 주식 그래프만 들여다보는 베짖이.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꿈에 부풀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텐션이 이보다 좋을 수 없었는데~

(며칠 전)



(울인하며) 가즈아아~~~ 나도 동학개미,
아니 동학베짖이 되어보즈아아!

지금은 영 힘을 못 쓰고 우수수 하락중인 그래프를 보면서
피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짖이.
가슴 두근거림이 잦아들지 않는데~



매번 단타만 치다가 되는 주식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넣었는데...
이 우수수 하락장 실화냐...
심장은 또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나대지마 심장이...



아니 너는 또 회사 때려치고
여기서 이려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카페에는 머선129 친구...



나는 잠깐 미팅이 있어서 왔지.
근데 왜 가슴을 부여잡고 있어, 괜찮아?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영업부에서
승승장구 실적킹인 슈퍼개미,
베짖이의 안색을 살피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급히 마사라 권하는데~



(꿀꺽 꿀꺽) 주니까 마셨는데, 이게 뭐야. '보령우황청심원'이라고?
보통 우황청심원은 환으로 되어 있지 않나? 가만 여기 효능에
'정신불안, 두근거림, 정신혼미'라고 적혀 있네. 이거 나잖아?



**환으로 된 우황청심환만 생각하다니, 트렌드에 뒤쳐진 옛날 베짖이!!
액상이라 복용도 쉽고 약효도 빠르게 나타난다고!** 자네 얼굴색 돌아온 거 봐!



(거울보고 가슴에 손 얹으며) 잿빛 얼굴색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혈색이 돌아왔네! 어머머 두근거림도 진정되고! 맛도 좋다~ 베야호!!!!



**뿐만 아니라 우황의 함량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
휴대도 간편해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우황청심원**이라고 할 수 있지!



네 덕분에 놀란 마음이 진정 됐어. 아직 하락장은 진정되지 않았지만
좀 잊고 있어야겠다. 잠도 통 못 잤어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난 너 보면 가슴이 떨리더라 베짖아. 영끌 그만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좋아하던
바이올린도 다시 취미로 켜고 해야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내 친구 파이팅!

하락장을 벗어나 열심히 취업 공부한 베짖이.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영업팀에 입사해
슈퍼개미와 한 팀이 되었고~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바이올린 켜던 실력을 발휘해 영업킹이 되었다는 소식~

**보령홀딩스,
유망 헬스케어 스타트업 적극 발굴**



보령홀딩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육성하기 위해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한다. 신한 오픈이노베이션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 간의 기술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6월 7일까지 모집을 마감했다. 보령홀딩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혁신, 웰니스 영역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화 연계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접 투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령제약,
'온베브지주' 국내판권 계약 체결**



지난 5월, 보령제약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주'에 대한 국내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항암제부분 점유율 1위 기업인 보령제약은 '온베브지주 100mg 및 400mg'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항암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항암제부분 경쟁력을 더욱 높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협업뿐 아니라 LBA 인수 등을 통해 항암제 역량을 키워나갈 초석이 될 예정이다.

**보령제약,
직원 건강 고려해 '백신 휴가' 도입**



보령제약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5월 27일부터 전 임직원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령제약 임직원들은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2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받게 된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총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은 격려품으로 '배달앱 상품권'도 함께 지급받는다.

**보령제약,
신입사원 공채 실시**



보령제약이 전문의약품(ETC) 영업직군에 대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했다. 5월 10일까지 접수 받은 지원서를 토대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SI 역량검사를 실시한 후, 제약영업 직무에 적합하고 영업사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세일즈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자들의 직무 선택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보령제약,
무코스타 서방정 론칭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보령제약이 동일성분 제품 중 유일하게 속방층과 서방층의 이중정 구조로 구성된 무코스타 서방정(성분명 레바미피드, Rebamipide)의 론칭을 기념하는 온라인 심포지움을 4월 21일 개최했다. 이번 '무코스타 서방정 론칭 온라인 심포지움'은 '무코스타 서방정을 활용한 최적의 위장관계질환 치료법'을 주제로 대한내과외사회 박근태 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상균 교수가 연자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보령제약,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대상 수상**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권위의 의료봉사상인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설립한 봉사단체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15년째 펼쳐오고 있다. 시상식은 3월 17일 중보홀에서 진행됐다.

**보령제약,
심혈관통합학술대회서 '카나브' 학술세션 진행**



보령제약이 4월 16일 개최된 2021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에서 '카나브' 학술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카나브 학술세션은 '심혈관계 질환 관리의 최신지견(Current advance of management in cardiovascular disease)'이라는 대주제 아래 한양대 신진호 교수가 연자로 나서 '피마사르탄을 활용한 국내 고혈압관리 현황(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with Fimasartan in Korea)'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듀오덤' 패키지 리뉴얼**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습윤밴드 '듀오덤' 제품의 패키지를 리뉴얼해 출시한다. 듀오덤의 특징점을 시각화 하고, 상처관리 전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움직임이 많은 상처엔 듀오덤'이라는 키메세지를 새로운 패키지에 삽입해, 국내 유일하게 '주름 기술'이 적용된 제품임을 부각했다. 듀오덤 플러스 엑스트라씬은 일반 신체 부위뿐 아니라 무릎, 팔꿈치 등 굴곡지거나 움직임이 많은 부위의 상처에도 사용이 적합하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초경량 '브링 스킨 에어 마스크' 출시**



건강 솔루션 브랜드 '브링(BRing)'에서 출시한 '브링 스킨 에어 마스크 KF-AD'는 2g대의 초경량 마스크로, 부드러운 감촉과 우수한 통기성이 강점인 쿨-테크 제품이다. 이에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하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카렌딩 공법'으로 만든 특수 원단을 안감에 적용해 부드러운 감촉을 제공하고 '친수성 원단'으로 우수한 통기성을 제공한다.

**보령바이오파마,
유전자 분석 서비스 공동 업무협약 체결**



보령바이오파마가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인 새로운 산전태아·신생아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보령바이오파마는 EDGC와 '비침습적 산전태아 진단서비스(더맘스캐닝) 및 신생아 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지스캐닝)' 공급계약을 5월 31일 보령바이오파마 본사에서 체결했다. 더맘스캐닝은 임신부 혈액 내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 지스캐닝은 유전성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서비스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링 식물성 프로틴 스낵 및 그레놀라' 기부**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돌봄네트워크 '온' 등 4개 단체에 6,800만 원 상당의 '브링 식물성 프로틴 스낵 및 그레놀라' 제품 21,000개를 기부했다. '브링'의 제품들을 다양한 사회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바이젠셀,
기술성 평가 통과, 3분기 상장 추진**



바이젠셀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의 완성도 및 성장 잠재력, 기업의 성장 가능성, 인력 수준 등 다방면에 걸쳐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2곳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 BBB등급을 획득해 뛰어난 기술력과 기업의 성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바이젠셀은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3분기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령 <웹진 BRing> OPEN!

BRing
WEBZINE



난리났네~ 난리났어!
2021년 1월, 화려하게 OPEN한 <웹진 BRing>! 혹시,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보령의 인물, 팀, 제품, 행사, 사내문화를 알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라고 꼭 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TIP!

카카오 플러스친구에서
보령 <웹진 BRing>과
친구 맺으시면
매 호 **오픈일을 알려준대요!**



Step 1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웹진 B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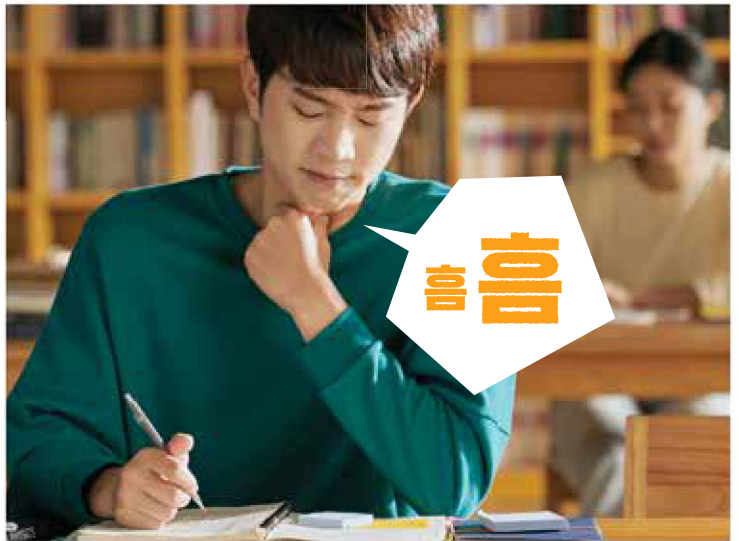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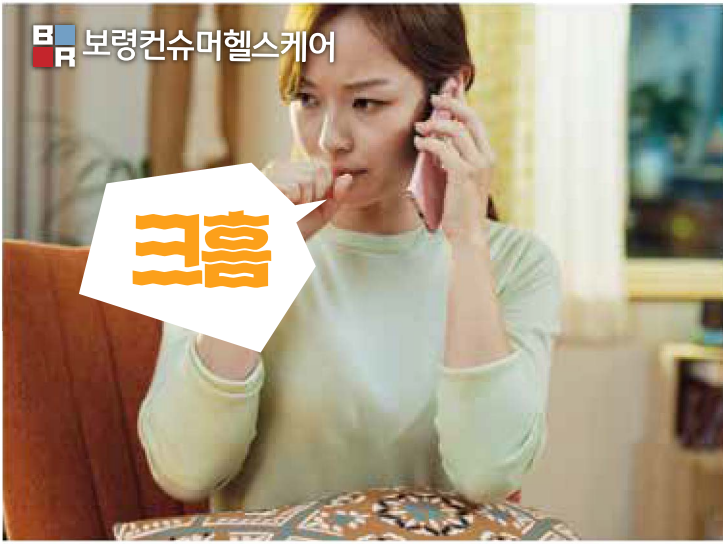
Step 2

검색창에 '웹진 BRing'을
입력하세요.



Step 3

'웹진 BRing'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헛기침 목의 이상을 알리는 증상입니다

기관지 쿨케어
용각산 쿨

